

# ‘대체’ 꼬리표 떼어 황동하, “알고보니 선발 체질”



황동하

<KIA 타이거즈 제공>

## 5월에 더 빛난 황동하, ERA 1위로 존재감 증명

### 규정 이닝 투수 중 유일한 1점대 ERA, 월간 MVP 후보 영예 최근 선발 5경기 모두 5이닝 이상 소화...팀 반등 ‘필승카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우완 황동하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올 시즌 KIA 국내 선발진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수다. 지난해까지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올해는 결과로 말하고 있다. 숫자가 이를 보여준다.

황동하는 올 시즌 13경기에서 5승 무패 1홀드, 평균자책점(ERA) 3.91을 기록 중이다. 4차례 퀄리티스타트(QS)를 거뒀고, 46이닝 동안 35개의 삼진을 잡아냈다. 피안타율은 0.280, 피홈루율은 0.318, WHIP은 1.30이다. 이미 커리어 하이 페이스다.

2024년 5승 7패 ERA 4.44, 지난해 1승 2패 ERA 5.30과 비교하면 성장 폭은 더욱 뚜렷하다. 특히 5월 활약이 돋보였다.

그는 5경기에 등판해 4승 무패, 평균자책점 1.48을 찍었다. 30%이닝 동안 25피안타 2탈삼진

을 곁들였고 자책점은 5점뿐이었다.

5월 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다.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 가운데 1점대 ERA도 황동하가 유일하다. 이 같은 활약 속에 그는 월간 MVP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즌 초반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3월29일 SSG전에서 구원 등판해 1¼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다. 이후 불펜에서 허리 역할을 맡았다.

반전은 선발 합류 이후였다.

4월26일 롯데전에서 기회를 받은 그는 4이닝 2실점을 남겼다. 5월2일 KT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이어 롯데전 6이닝 1실점, 두산전 6이닝 3실점, SSG전 5¼이닝 1실점, 키움전 6이닝 무실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 선발 등판한 5경기 모두 5이닝 이상을 책임졌다. 그가운데 4경기에서 승리를 챙겼다.

경기 초반 운영도 안정적이다. 올 시즌 1-3회 피안타율은 0.182다. 1회 피안타율은 0.150, 2회 0.190, 3회 0.200이다.

위기관리 능력 역시 눈에 띈다.

주자가 없을 때 피안타율은 0.209지만 주자가 나가면 0.200으로 떨어진다. 득점권 피안타율도 0.211에 불과하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포크볼도 강점이다. 올 시즌 포크볼 피안타율과 피장타율은 모두 0.167에 불과하다. 구사율은 20%대로 결정구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아직 7회 이후 기록은 많지 않다. 긴 이닝 소화 능력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황동하는 3일 롯데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상위권 진입을 위해 선발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팀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그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이유다.

롯데를 상대로도 좋은 기억이 있다. 올 시즌 두 차례 만나 10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사직 경기에서는 6이닝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반등이 필요한 시점.

KIA가 다시 기대를 거는 이름도 황동하다. /주홍철 기자

# “KBO리그 2쿼터 최고 투수 되겠다”

인/터/뷰

KIA 유니폼 입고 KBO리그 복귀한 시라카와

## 내일 롯데전 선발 등판 “좋은 투구 보여주고 싶어” “팔꿈치 불안감 전혀 없어...든든한 팀 동료 믿는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새 아시아쿼터 투수 시라카와 케이쇼가 다시 한국 무대에 선다. 오는 4일 롯데 자이언츠전 선발 등판이 유력한 그는 KIA 마운드의 새로운 변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라카와는 2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기자단 인터뷰에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돼 기쁘다”며 “예전부터 다시 한국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SSG 랜더스와 두산 베어스에서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로 KBO리그를 경험했다. 이후 팔꿈치 인대접합수술을 받고 약 1년간 재활에 전념했다.

올 시즌 일본 독립리그 도쿠시마 인디고스에서 5경기 모두 선발로 나서 1승 1패 평균자책점 1.08, 34탈삼진을 기록한 뒤 KIA 유니폼을 입었다.

시라카와는 수술 이후 가장 달라진 점으로 제구와 몸 관리에 대한 생각을 꼽았다.

“부상을 겪으면서 다치지 않기 위한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며 “지금은 몸 상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팔꿈치 상태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예전에도 팔꿈치 통증이 심했던 것은 아니지만 계속 공을 던지면서 피로가 쌓였던 것 같다”며 “수술 이후에는 팔꿈치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다”고 했다.

성적에 대한 욕심 역시 숨기지 않았다.

“2년 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싶다”며 “한국에서 뛰고 있는 일본 선수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KIA 타선에 대한 인상은 강렬했다.

“상대 선수가 만났을 때 KIA 타자들은 언제나 한 방을 칠 수 있는 팀이라고 느꼈다”며 “지금도 그 선수들이 같은 팀 동료가 돼 든든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KBO 리그도 종종 잘 보고 있다”며 “한국 야구를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다.

롯데전에 대한 각오도 전했다.

“예전 롯데전은 좋은 기억이 많지 않다”며 “이번엔 반드시 좋은 투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시라카와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밝혔다.

“더 높은 무대에서 뛰는 것이 목표”라며 “메이저리그에 갈 기회가 있다면 도전하고 싶다.



KIA 타이거즈 새 아시아쿼터 투수 시라카와 케이쇼 <KIA 타이거즈 제공>

하지만 지금은 KIA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주홍철 기자

## ‘이강인 합류’ 흥명보호, 완전체 첫 훈련



소속팀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을 소화하느라 ‘지각 합류’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1일(현지시간) 자이언스뱅크 트레이닝센터에서 손흥민과 몸을 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체육회, 단체종목 지역교류 공모 선정

### 농구·핸드볼, 국비 5천만원 확보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지정 스포츠클럽 단체구기종목 지원 사업’의 일환인 ‘지역교류전’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정스포츠클럽을 비롯한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사설클럽 등 스포츠클럽 간 교류 활성화와 단체구기종목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구와 핸드볼 종목이 선정돼 교류전을 치르게 됐다.

이번에 개최될 교류전은 전국 각지에서 초·중학생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지역 간 스포츠 네트워크 구축, 우수 운영사례 공유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중 기자



또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한 단체구기종목 활성화와 우수 인재의 조기 발굴에도 기여하며 학생들에게 뜻깊은 배움의 기회를 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갑수(사진) 광주시체육회장은 “지정스포츠클럽 소속 학생들을 비롯한 지역 간 학교운동부 선수들,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들이 한데 어울려 스포츠로 교류함으로써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산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교류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광주여대 이수연, 전국대학양궁선수권 ‘3관왕’

## 60m·50m·개인종합 ‘金’...광주여대, 단체전 ‘銅’

광주여대 이수연(사진)이 제2회 회장기전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이수연은 2일 익산종합경기장에서 끝난 대회 여자부 거리별 경기 60m에서 348점을 쏘아 347점을 기록한 김서하(순천대)를 1점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수연은 50m에서도 344점으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거리별 경기 합산으로 순위를 가린 개인종합에서 1천378점을 기록한 이수연은 2위 엄혜정(경희대·1천375점)을 제치고 대회 3관왕에 등극했다.

이수연, 김하람, 한유진, 남지현이 팀을 이룬 광주여대는 단체전 종합득점에서 4천73점을 합작하며 1위 한체대(4천88점·X10 243), 2위 경

희대(4천88점·X10 236)에 이어 동메달을 따냈다.

김서하는 올림픽라운드 치러진 여자부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64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김서하는 32강에서 김하은(광주여대), 16강에서 서보은(순천대), 8강에서 조수혜(한체대), 4강에서 조한이(한체대)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안서윤(한체대)에게 세트스코어 5대6으로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광주여대는 올림픽라운드 치러진 여자부 단체전 8강에서 원광대를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으나 경희대에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이수연은 “기보배, 최미선, 안산 등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를 배출한 양궁 명문의 일원으로 매 경기 강한 자부심을 갖고 사대를 선다”며 “선배들이 쌓아올린 빛나는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팀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오는 21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대통령기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KOVO, SOOP 가입 승인 ‘창단 본격화’

### 구단주에 이민원 대표 선임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SOOP이 여자 프로배구에 합류한다.

SOOP은 2일 한국배구연맹 이사회 및 임시 총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은 뒤 구단주와 단장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창단 작업에 들어갔다.

AI페퍼스를 인수해 재창단하는 새 구단은 SOOP의 자회사인 SOOPTV가 맡는다.

구단주는 SOOP 이민원(45·사진) 대표이사, 단장에는 SOOP 이병호(48) 전무가 각각 선임됐다. /박희중 기자



SOOP은 선수단 운영과 프런트 조직 구성, 연고지 협력 등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리그 참가를 위한 행정 절차와 선수단 구성 작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SOOP은 프로배구단을 운영해 경기 중계뿐 아니라 선수단, 팬, 스트리머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팬들과의 접점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박희중 기자